

# 김동석 시집 『길』에 나타난 순수·이념의 이분 양상 소고\*

김 효 신\*\*

## <목 차>

- I. 머리말
- II. 김동석의 삶과 문학
  - 1. 유년시절과 청년시절
  - 2. 해방기 문학과 월북
- III. 시집 『길』과 순수와 이념
  - 1. 1부 <풀넙배> - 순수와 습작기
  - 2. 2부 <비탈길> - 순수와 이념의 혼재
  - 3. 3부 <백합꽃> - 이념과 열정의 만남
- IV. 김동석 시의 문학사적 의의 - 맺음말

## 【요 약】

본고는 월북문인 김동석의 유일한 시집 『길』에 실려 있는 시작품들을 중심으로 좌익측 소장 비평가 김동석이 아닌 시인 김동석의 진면목을 살펴보는 데 역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시집 『길』에 실려 있는 33편의 시들 중 특히 1부 <풀넙배> 에 실려 있는 12편의 시들은 주로 정형성을 띄고 있으며 순수한 동요적인 초기 시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독조 비평가’라는 좌익 비평가의

\* 본 논문은 2006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대구가톨릭대학교 외국어대학 이탈리아어과 교수

면모를 불식시킬 만큼은 아니어도 김동석이 예술가적 순수성을 작품을 통해 드러냈음을 확인하게 해 주었다. 반면에, 2부 <비탈길>의 11편의 시들은 1부에서 순수하게 비애를 노래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현실의 어조에 무게가 실려 있다. 1부, 2부에 실려 있는 시들이 같은 일제 말에 창작된 시들이지만, 특히 일제가 극악을 달리던 말기에 씌어진 2부 <비탈길>은 1부에 비해 동요적인 정서도 사라지고 시 제목들도 훨씬 무거운 이념적인 것들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부의 시들을 통해서 시인의 순수와 이념의 갈등 양상을 표출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방이후 창작된 3부 시들은 1부의 시들에 비해 주제와 내용면에서도 훨씬 진지하며, 2부의 시들과 비교했을 때도 사상적 고집이 강하게 엿보이는 시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시집 『길』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김동석 자신이 어두운 일제치하를 견뎌오면서 묵묵히 걸어온 갈등의 길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고백이다. 그런 만큼 1부, 2부, 3부에 걸친 그의 시적 고백을 통해서 순수한 시의 세계에서 점차 현실적인 시의 세계로 변화되어 가는 증거를 잡을 수 있고, 3부에서 그의 리얼리즘 비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시작품들을 통해서 순수와 이념의 갈등 양상을 지나 사상적 확립 및 시세계의 정서적 고갈을 예견해 볼 수 있다.

## I. 머리말

우리는 흔히 김동석을 비평가, 그것도 좌익측 소장 비평가라고 평가해왔다. 월북문인이라는 단서 때문에 문학사적 평가와는 거리가 먼 자리에서 문인들의 회고록이나 문단사의 한구석에 그의 이름만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서서히 문학사의 범위 안에서 수렴되는 기미를 보였다. 김윤식은 「비유와 리듬」<sup>1)</sup>이라는 글에서 김동석의

1)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76년.

수필과 비평의 문체를 간략하게 검토하였고, 신동욱은 자신의 저서 『한국현대비평사』<sup>2)</sup>에서 김동석의 비평을 좌파비평의 항목에서 비교적 자세히 다루면서 이념에 사로잡혀 객관성을 상실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김동석의 비평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권영민, 임현영, 김윤식 등이 해방기 문학사에 많은 성과를 보여주었고, 기타 신형기, 김승환, 하정일 등의 연구가 해방기의 문학사를 광범위하게 논의함으로써 이후 김동석 연구에 본격적으로 다가설 단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막상 1988년 11월 해금이 되었을 때 김동석은 관심 밖이었고, 문학사적 커다란 반추 없이 단순히 일군의 월북 작가 대열에 있을 뿐이었다. 1990년에 들어서서야 비로서 채수영<sup>3)</sup>이나 송희복<sup>4)</sup> 등이 김동석의 작품과 생애에 대해 연구할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김영진<sup>5)</sup>과 홍성식<sup>6)</sup> 등이 김동석의 비평에 대해 현실인식과 행동원리의 전형, 또는 비판적 지식인의 전형으로 평가하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가져왔지만 작가론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비평론을 개괄 정리하는데 머문 아쉬움을 준다. 1992년에 나온 석사논문 한 편<sup>7)</sup>이 의욕적으로 김동석의 작가론을 논리적으로 풀어가고자 노력하였고, 1994년에 『

2) 신동욱, 『한국현대비평사』, 시인사, 1988년.

3) 蔡洙永, 「詩的 同一性과 距離 - 金東錫論」, 『詩文學』 1990. 3 (100-109 pp), 1990. 4 (106-121 pp)

4) 송희복 「김동석론-해방기 문학비평의 표정」, 『현대문학』 1990.7. (376-391 pp.) 그리고 같은 저자의 「상아탑과 구국투쟁에 이르는 길」(『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년)을 참고.

5) 김영진, 「김동석론- 김동석의 비평과 그 한계」, 『전주우석대우석논문』 1993. 12. (81-99 pp)

6) 홍성식, 「생활과 비평-김동석론」, 『명지어문학』 1994. 5. (151-175 pp)

7) 황선열, 「해방기 민족문학론의 특성 연구 - 김동석 비평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12.

『황해문화』를 통해 발표된 이현식의 평론<sup>8)</sup>이 그나마 갈증을 느끼던 김동석 연구사에 단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제껏 나온 몇 편 안되는 평론, 논문 중에서 가장 알차고 새로운 사실을 많이 캐낸 논문은 1995년 이희환의 석사논문 「김동석(金東錫) 문학연구」<sup>9)</sup>라고 생각되며 1996년에 나온 또 다른 석사논문 한 편<sup>10)</sup>은 위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해 놓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엄동섭<sup>11)</sup>과 앞서 글을 발표했던 이현식<sup>12)</sup>이 각각 한 편씩을 추가했고, 2000년 이후 석사논문 3편이 추가<sup>13)</sup>되었으나 주로 김동석의 비평에 관한 연구였다. 이렇듯 손에 꼽을 만큼의 연구 성과를 통해 볼 때 김동석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미진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제껏 이루어진 그나마의 연구도 대부분이 비평가 김동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의 해방 후 3년간에 걸친 왕성한 평론 활동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반면에 그의 시작품에 대한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채수영의 글 한 편<sup>14)</sup>과 이희

8) 이현식, 「역사 앞에 순수했던 한 양심적 지식인의 삶과 문학- 김동석에 대하여」, 『황해문화』, 1994년 6월 제 3호 212-234 pp.

9) 李羲煥, 「김동석(金東錫) 문학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년 2월.

10) 金 娜, 「김동석의 비평 활동 연구」, 홍익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6년 8월.

11) 「상아탑에서 민족문학에 이르는 해방기 지식인의 변증법적 도정: 김동석론」, 『한국문학평론』17, 2001년 5월.

12) 「김동석연구 2: 순수문학으로부터 민족문학으로의 도정」, 『인천학연구』제 2-1호, 2003년 12월.

13) 홍성준, 「김동석 비평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논문, 2000년 2월, 「김동석 비평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2002년 2월, 「김동석 연구: 비평문학을 중심으로」, 공주대 대학원, 2002년 2월.

14) 자료상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채수영의 평론 이외에 채수영의 「김동석의 시적 특질」이라는 평론이 『東岳語文論集』(1990년 12월)에 실려 있으나 검토해본 결과 평론 제목만 다를 뿐 내용은 토씨하나 틀리지 않은 같은 글

환의 작품론의 일부에 그치고 있다.

본 소고는 우선 김동석의 삶과 문학을 통해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살펴보고, 이어서 그의 시작품들을 유일한 시집 『길』을 중심으로 정리 분석하고자 한다. 새로운 시 발굴에 관해서는 시집 『길』 이외에는 1946년부터 그가 월북을 단행하기 전까지의 기간(1949년이나 1950년)에 발행된 모든 책들과 잡지들을 뒤져 찾아보았으나 성과가 없었다. 단지 1995년에 나온 이희환의 논문에서 언급된 불완전한 시 3편이 그의 수필 속에 같이 실려 있다는 것과 『우리문학』3호에 실릴 예정이던 시 「나비」가 잡지 폐간으로 자연 소개되지 않고 사장되었다는 자료를 찾아냈을 뿐이다. 시인 김동석의 새로운 면모를 정리 해명하며 그의 시를 재평가하려는 것이 본 소고의 목적이다.

## II. 김동석의 삶과 문학

해방기의 문학사가 문학사 연구의 각광을 받았던 80년대에도 김동석은 관 심 밖이었다. 여타 다른 월북 작가들<sup>15)</sup>과 마찬가지로 반공 이데올로기나 냉전 이데올로기의 울가미 속에서 객관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악랄한’이라든지 ‘독조(毒爪)’<sup>16)</sup> 비평가라는 꼬리표를 달

이었다.

15) cf. 일반적으로 월북작가, 월북문인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월북의 원인과 경과 그 성격에 따라 세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1945년 12월 조선문학가동맹으로 조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월북한 예맹계 문인들을 1차 월북문인으로, 1947년부터 1948년 정부 수립 때까지 주로 월북한 남로당계 문인을 2차로, 정부수립 이후 한국전쟁 시기까지 월북한 문인을 3차 문인으로 나눌 수 있다. 남로당계 문인들이 월북한 것은 주로 2차와 3차에 걸쳐서이며, 김동석은 3차에 속한다. 권영민, 「해방 직후의 문인 월북과 그 문학사적 위상」(『한국민족문학론연구』, 민음사, 1988) 참조.

고 이념의 희생양이 되어 남, 북문학사 어디에서도 그의 이름 석 자를 찾기 힘들었다. 그에 대한 인간적인 평도 천양지차라 그 격동의 세월을 한 인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실감해볼 수 있다. 물론 악평도 있었지만, 김철민, 문철민, 이광현 등의 서평을 통해 볼 때, 이들의 글은 김동석을 재능 있는 문필가라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드러낸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김동석의 인간상을 가장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정지용이다.

“돌아다니기도 잘하고 아내와 아들과도 남달리 의(誼)가 좋고 남의 내외(內外) 이혼싸움 화목에도 정성스럽고 [.....] 민주주의토론을 걸고 이론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단도직입적 정면공격을 하다가도 신경질적 흥분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엮पी어적 입장에 서고 마는 여력으로 들어앉아 공부하고 나와서 원고를 판다. 몸도 통통해 간다. 나는 이 사람의 사람을 잘 안다. 참 좋은 사람이다.”<sup>17)</sup>

정지용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김동석이 세간에 나도는 말처럼 ‘독조 비평가’니 ‘악랄한 좌익비평가’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정지용의 말대로 ‘참 좋은’ 인간성의 김동석이라는 인물의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을 문학과 연결 지어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어서 그의 실제 활동기에 속하는 해방기의 문학, 그리고 월북으로 연결시키고자 한다.

### 1. 유년시절과 청년시절

김동석은 1913년 9월 25일 경기도 장의리<sup>18)</sup>에서 태어났다. 해방 직

16) 김동리, 『毒爪文學의 本質』, 『문학과 인간』, 백민문화사, 1948, p. 164.

17) 정지용, 「부르조아의 인간상과 김동석」, 『자유신문』, 1949. 2. 20.

18) 京畿道 富川郡 多朱面 長意里 403번지(지금의 인천시 송의동), 김동석의

후에 출간된 수필 「토끼」에서 김동석은 어린 시절을 상기하면서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를 듣고 자라난 나는 노래라곤 아홉 살 때 ‘제밀’ - 제물포를 우리 마을에선 이렇게 불렀다 - 로 이사 가서야.....”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취학 전 성장기를 장의리에서 보내다가 그가 아홉 살 때인 1921년을 전후해서 인천 경동으로 이주하였음을 알려주는 주요 자료이다. 그의 수필에는 장의리에서 보낸 김동석의 유년을 짐작케 하는 일화가 여러 편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수필 「고양이」에는 네 살 때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발톱을 가위로 모두 잘라버려 할퀴지도 못하게 하고 쥐도 못 잡게 한 이야기가 나온다. 또 「잠자리」라는 수필에는, 미리 잡은 암놈으로 수놈 잠자리를 꼬여 잡고, 이것들의 끈지를 잘라 밀집을 쫓아서 귀향 보내듯 날렸다는 이야기도 보인다. 수필 「나」(『국제신문, 1949.1.1.』)에는 “나는 외아들로 멋대로 자라났고 매는 커녕 꾸즈람도 한 번 변변히 들어본 적이 없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로 보아

---

아명은金玉璽 이고 본관은 경주, 본적은 京畿道 仁川府 外里 75번지이다. 아버지 金完植 씨와 어머니 朴暎 윤씨 사이의 2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러나 김동석은 형제 중에 순위 누이 金今順이 김동석이 태어나기 2년 전인 1911년에 사망하고, 남동생 옥구와 여동생 옥순도 태어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여 실질적으로는 1남 2녀의 장남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가 본적지인 外里에서 태어나지 않고, 지금의 수봉산 밑 수의동 근처인 부천군 다주면 장의리에서 태어난 것은 아마도 부친의 상업 활동이 이유인 것 같다. 김동석의 아명 김옥돌의 인천공립보통학교(현재의 인천창영국민학교) 학적부에는 보호자의 직업란에 “布木雜貨商”으로 나와 있다. 아마도 부친은 인천부 근교를 왕래하며 상업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 장의리에서 그와 그의 동생 玉求, 玉順, 道順 등이 태어났다. 이제껏 출생지가 확실히 규명되지 못했다가 아명이 김옥돌이며, 출생지가 인천이 아님을 밝혀내었던 이현식의 앞의 글에 힘입어, 이희환이 인천직할시 남구청 소장의 김동석 아버지 김완식의 제적등본(제적년도 1943)을 찾아낸 것이다. 김동석이 업동이라는 설(이원규, 「국토와 문학-인천」, 『문예중앙』, 1988년 겨울호)도 있었으나, 사실이 아니다.

김동석의 유년기는 자연과 벗해 마음껏 뛰놀며 꿈을 키우던 그야말로 “무동을 타고 장대로 하늘의 별을 따려는 아름다운 誤謬”<sup>19)</sup>로 가득 채워진 나날들이었던 것 같다. 그의 시와 수필에 자주 등장하는 꽃이라든지 나무 등과 같은 자연에 대한 예찬과 풍부한 자연심성, 그리고 거기에 천진난만하게 어울리려는 동화적 상상력 등도 그의 이러한 유년기 성장환경에서 영향 받은 바가 컸을 것이다. 김동석의 유년기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그가 보통학교 입학 전에 서당에 다녔다는 것이다.<sup>20)</sup> 서당교육을 통해 그는 동양의 인문적 전통에도 친연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점은 영문학을 전공한 그가 비평에서 어떻게 것처럼 동양의 인문적 전통에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서당에서의 漢學수업은 이후 그의 문학 활동에 큰 재원이 되는 것이다.

김동석이 인천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한 것은 1922년 4월로, 그의 나이 10세 때의 일이다. 아버지가 京洞 134번지의 상가에 포목잡화점을 경영하여 집안이 점차 경제적 안정을 누리기 시작하던 때라 소년 김동석은 학창시절을 비교적 평탄하게 보냈다. 아버지의 지나친 검소함과 그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불만도 있었고, 아버지의 절대적 봉건적 생활태도가 소년 김동석에게는 의외로 큰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sup>21)</sup> 김동석은 보통학교 시절 성적이 대단히 우수해서, 체조과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과목이 전 학년에 걸쳐 만점에 육박하고 있으며, 성격적으로도 야무지고 자존

19) 김동석, 「크레용」, 『해변의 시』, 박문출판사, 1946. 4. p. 118.

20) 그의 보통학교 학적부 <입학전 경력>란을 보면 “書堂”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서당교육은 아마도 장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1922년 인천창영공립 보통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3, 4년간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희환, 앞의 논문 참고.

21) 김동석의 글에 일관되게 보이는 봉건적 관념에 대한 강한 회의와 거부 의식은 여기에서 싹튼 것으로 생각되며, 아버지의 수전노와 같은 치부에 대한 강한 불만이 이후 그를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거부 의식으로 이끌고 간 것 같다. 김동석, 수필 「나」 참조.

심이 세서 남달리 강한 주체의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이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인천상업학교(인천고등학교의 전신)에 입학한 것이 1928년<sup>22)</sup>이다. 그가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상업학교에 진학하게 된 것은 아마도 부친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sup>23)</sup> 그는 학창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서도 조용하고 모나지 않은 성격에 많은 친구들을 거느리기도 했다. 바이올린을 즐겨 키고 운동에도 다재다능했던 그는, 그러나 인천상업 학교를 3학년 2학기까지만 다니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건을 맞는다. 1년 3학기제인 학교를 3학년 2학기에 수료 퇴학처분 당하게 된 것은 1930년 3학년 겨울에 친구들(김기양, 안경복)과 더불어 광주학생의거 1주년 기념식을 주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김동석의 인간됨과 영특함을 아쉬워했던 일본인 교장의 추천과 3학년 수료 입증시험 통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김동석은 무난하게 서울의 인문계 학교인 중앙고등보통학교(중앙고보)에 4학년으로 전학하게 된 것이다. 이 때가 1932년 봄의 일이다. 이것이 곧 막연히 동경하던 경성이라는 보다 큰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기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의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 그가 중앙고보를 24회로 졸업하고 유일하게 경성제국대학에 입학한 것이 1933년이다. 마르크시즘적 전통이 강했던<sup>24)</sup> 경성제대에 입학한 것 또한 청년

22) 그가 중학교 과정인 인천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던 1928년은 조선에서 한창 학생운동이 마르크시즘의 영향을 받아 조직적이고도 치밀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23) 수필 「봄」에 그가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동창생들에 대한 부러움과 자기 자신의 웅졸한 처지를 토로하는 회고담이 보인다.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한 아버지의 권유로 그가 인천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한 것임을 이로써 유추할 수 있다.

24) 경성제대는 이미 학생들 사이에 부하린의 『유물사관』, 마르크스의 『자본론』 등을 읽고 토론하는 독서회 모임이 많이 조직되어 있었고, 1931년에는 급기야 반제동맹(反帝同盟) 사건이 터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이현식의 앞의 글 참조.

김동석의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sup>25)</sup> 그는 이곳에서 근대적 학문을 연마하는 동시에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민족적 현실에 대한 고민과 청년으로서의 꿈을 설계하며, 전국 각지는 물론 일본에까지 수학여행을 다녀오는 등 견문도 넓히고 젊음을 만끽하게 되는 것이다. 그가 예과 시절을 거쳐 본과로 들어갈 때 성적우수자들의 A그룹에 속해서 입신양명의 식민지 관료로의 길이 열려있는 법학을 거부하고 전공을 바꿔 영문학을 택했던 것은 아마도 예술을 좋아하는 기질에다가 식민지관료로 가는 지름길인 법과에 대한 의식적인 거부감이 작용했던 듯하다.

당시 경성제대 영문과의 학풍은 주임교수 사토(佐藤)의 영향으로 낭만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김동석은 사토교수의 말대로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외국문학 연구에서 찾고자”하였다. 수재 중의 수재로 소문난 김동석이 매튜 아놀드(Matthew Arnold)를 통해 민주주의 정신과 부패해가던 빅토리아조 영국자본주의를 맹렬히 비판한 교양정신, 그리고 비평과 시의 사회에 대한 역할을 터득했음도 이로 미루어 짐작

25) 김동석은 중산층 가정에서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으면서 왜 마르크시즘에 빠져들었는지 궁금하다. 그가 수학기에 마르크시즘에 영향을 받은 것은 확실하다. 1930년의 광주학생운동 1주년 기념식 주도 사건은 그 증거가 된다. 1920년대 학생운동이 줄곧 마르크시즘적 세계관과 그 조직에 기초한 바 큰 것을 생각하면, 이 사건은 김동석 또한 마르크시즘이라는 당대 유행사상에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동조했음을 증거하며, 그 연장에서 터져 나왔던 외적 행동적 표출이 1930년 사건이 된다고 본다. 미루어보건대, 봉건적 사회 관념과 봉건사상을 혐오 - 그 가장 가까운 대상이 김동석의 부친 김완식 - 하였던 김동석이 봉건적 관념을 송두리째 바꾸어버리는 마르크시즘을 접했을 때의 그의 느낌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신선하고 반가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그와 반대로 마르크시즘에 영향을 입어서 봉건적인 아버지의 ‘군림’을 혐오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마르크시즘의 전통이 강했던 경성제대를 선택하면서, 김동석은 마르크시즘의 과즙을 흠뻑 마실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할 수 있다. 김동석이 이렇게 아놀드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그의 문학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놀드의 말처럼 시는 인생의 비평이고, 비평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정신의 소산이라 할 경우, 시와 비평은 사회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김동석도 이 점을 자기 문학관의 자양분으로 삼았을 터였다.<sup>26)</sup> 시와 비평의 독자적 영역과 역할에 대해서 아놀드로부터 배우게 된 김동석은 해방 직후 잡지 『상아탑』을 창간하여 문학의 순수성에 집착해 문학의 독자적 영역을 고수한 것이다.

1937년 9월, 경성제대 졸업 무렵, 김동석은 「朝鮮詩의 片影」이라는 글을 동아일보 지상에 발표한다. 식민지시대에 유일하게 발표한 평론으로 조선시에 대한 애정을 가득 담고 있다. 1938년 3월, 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곧 모교인 중앙고보에 촉탁교사로 부임하여 영어를 가르치게 되고, 이 무렵 대학원에도 진학한다. 1939년 무렵에는 보성전문학교(지금의 고려대학교의 전신) 교수로 초빙되어 해방될 때까지 여기서 영어와 영문학 강의를 한다. 해방 이후에 출간된 시집이나 수필집들에 실린 작품들은 대개 이때 씌어진 것들이다. 일제의 악정이 심해지던 1940년대에 그는 숨어서 한글로 시를 쓰고 수필을 썼다. 절망적인 시대에 지식인의 몸부림을 “무저항의 저항”<sup>27)</sup>으로 감내해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썼던 대부분의 시와 수필에서는 그런 정조가 주조를 이룰 수밖에 없었다. 일제 말 그가 창작활동을 했던 것은 일종의 저항운동이었다. 그나마 발표한 것으로는 수필 전문지 『博文』지에 수필 4편<sup>28)</sup>을 발표한 것과 『신시대』지에 「당구의 윤리」를 발표한 것이 전부였다.

1940년 들어, 경기여고를 졸업하고 22살의 함흥 출신 인텔리 여성 朱掌玉과 결혼하며, 결혼과 동시에 17년 동안 살던 킁킁한 어두운 오

26) 이현식, 앞의 글, p. 218.

27) 김동석, 「“길”을 내놓으며」, 시집 『길』, 정음사, 1946. p. 71.

28) 「고양이」(1940.3), 「꽃」(1940.7), 「녹음송」(1940.8), 「나의 豚皮靴」(1941.1) 등의 4편의 수필.

막살이 생활을 청산하고, 자그마한 마당이 딸린 아담한 집(京町 145번지)으로 이사하여 신희생활을 시작한다. 결혼 이듬해 1941년에는 장남 相國을 얻는다. 그러나 상국은 병약하여 이듬해 병원에서 사망한다.<sup>29)</sup> 자식을 잃고 난 아픔은 그의 처를 시의 화자로 쓴 「비에」에 잘 나타나 있다. 이들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아픔을 잊고자 京城府 鐘路區 唐珠町 114번지에 단칸 셋방을 얻어 상경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둘째 아들 相玄을 얻는다. 부친 김완식의 제적등본에는 三男이 없는데 이는 아마도 해방 이후에 셋째를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sup>30)</sup>

1940년 부친 김완식이 사망하고, 그 물려받은 재산의 일부로 시흥군 안양면 석수동 안양풀(pool) 앞 나무 많은 곳에 문화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한다. 해방할 때까지 그는 이곳에서 자연과 벗하며 은둔생활을 하였다.

일제 말 김동석의 이력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그가 조선연극협회의 상무이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고설봉의 증언<sup>31)</sup>과 서연호의 저술<sup>32)</sup>에서 김동석이 상무이사를 지낸 것은 사실이라는 정황을 얻는다. 그러나 김동석이 조선연극인들이 대거 참여한 현대극장이나 그것의 부설기관인 국민연극연구소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해방 후에 그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문학인의 친일잔재 청산을 소리 높여 고창하고 비교적 솔직히 자신의 처신을 반성한 중에도,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는 그 스스로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점 등에서 볼 때, 1944년 여름의 짧은 기간 동안 그것도 매우 형식적인 자리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듯하

29) 이희환, 앞의 논문, p. 23.

30) 「신결혼론」 p. 57에 “오늘날 건강한 아들이 둘이나 있고”라고 한 언급에서 알 수 있다.

31) 고설봉, 김미도 정리, 「증언으로 찾는 연극사- 국민연극시대」, 『한국연극』, 1992년 5월호.

32) 서연호, 『한국근대희곡사』, 고려대출판부, 1994. p. 292.

다. 그 또한 어쩔 수 없이 일제말의 수모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sup>33)</sup>

## 2. 해방기 문학과 월북.

김동석은 「학병 영전에서」라는 시에서 자신의 해방을 맞는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해방의 벅찬 감격과 함께 밀려오는 원통함과 분노가 김동석 시인에게 눈물로 울음으로 표출되었다. 이 벅찬 해방을 김동석은 안양에서 맞았다. 그러나 해방을 맞아도 일본군대가 남아있는 어수선한 시국이 계속되었고 정국은 혼미를 거듭하였다. 안양에 있던 김동석은 일인 경찰에게 체포되어 생사가 불명인 조선청년 문제를 항의하러 경찰서에 갔다가 친일파 방위대원들에게 데리를 당하기도 했다. 그 후 두어 달 가량을 안양에서 제국주의 소탕을 위해 선전뼈라를 작성하는 일에 몰두한다. 그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글보다 더 급한” 현실로 달려갔던 것이다. 해방과 더불어 그는 줄곧 재직하던 보성전문도 그만둔다. 1945년 11월을 전후한 시기에 서울로 이사와 셋방살이를 시작한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재 일부와 대학동창 노성석의 도움으로 잡지 『象牙塔』<sup>34)</sup>을 주재하기 시작한다. 이제 김동석은 상아탑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문학 활동을 펼친다. 그는 무엇보다도 문학의 독자적 역할을 강조하여, 문학인이 직접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극력 배격하였다.<sup>35)</sup> 문학가동맹의 정치적 노선은 옹호하였지만, 문학자는 문학을 통

33) 이희환, 앞의 논문, p. 25.

34) 『상아탑』은 1945년 12월 10일에 주간으로 창간되어 4호까지 발간하다가 5호부터 월간으로 전환하여 1946년 7호로 중단하였다. 주간은 배호가 맡았다. 김동석의 시사칼럼이 매호 표지에 실리고, 배호, 함세덕, 김철수, 오장환, 이용악, 청록과 시인들의 글과 시가 주로 실렸다.

35) 예술가는 무엇보다도 순수해야 하는데, 정치와 결부되면 불순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핵심적 이유였다.

해 역사적 과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1946년 김동석은 그동안 써왔던 수필과 시들을 모아 수필집 『해변의 시』와 시집 『길』을 출간하였다. 이 중 시 「鷲」과 수필 「잠자리」, 「나의 서재」, 「크레용」 등은 해방기에 새로 편찬된 중등 교과서에 수록되기도 한다.<sup>36)</sup> 또 발표한 비평문들을 모아 평론집 『예술과 생활』을 1947년에 발간하였다. 이후 김동석은 좌와 우를 막론하고 조선 문학의 건설을 위한 지식인의 사명과 문화의 역할을 강조하는 상아탑의 정신이라는 기본정신으로 내달아, 1948년 8월 남한에 단독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사회를 향해 시탄(詩彈)을 내쏘고 문화의 씨를 뿌리고자’ 활동하였다.

김동석은 1946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돌연 잡지 발간을 중지하고 지금까지의 노선과는 다르게 문학가동맹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1946년 5월 25일 연극동맹 보선위원으로 뽑히는 것을 시작으로, 8월에 결성된 문학가동맹 산하 문학대중화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하여 본격적인 동맹 일에 참여하며, 9월에는 조선문화단체총연맹(문련)<sup>37)</sup>에서 주최한 민족문화강좌에 나가 「민주주의와 문화」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는 한편, 10월에는 문련 산하 분과대표로 다른 문화인과 더불어 군정청의 러취장관을 방문하여 작금 사태에 대한 공개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1946년 11월에는 우익문단의 조선청년문학가협회의 대표격인 김동리를 비판한 「순수의 정체」를 『신천지』에 발표하여 유명한 순수논쟁에 불을 당기기도 한다. 1948년 4월에는 대표적인 좌익신문의 선봉 『서울신문』의 자매지인 『서울 타임즈』특파원 자격으로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당 및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의 취재차 평양을 방문한다. 그러나 단정수립 이후에는 사회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어 『문장』지 평론부문 추

36) 위의 작품들은 1949년 말에 가서 교과서에 수록된 좌익작가의 작품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37) 문련은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소속되어 있는 남로당의 외곽단체.

천위원을 지내거나, 매튜 아놀드를 다룬 장편 논문 「생활의 비평」을 쓰는 등 문학과 연구 활동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보인다. 같은 해 10월에는 조선영문학회에 참가,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극중 인물 폴스타프의 성격적 면모를 다룬 논문 「뿌르조아의 인간상」을 발표하며, ‘여성문화협회’ 주최 여성문화강좌의 강사 일을 맡아보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 1949년 벽두에는 다시 김동리와 『국제신문』<sup>38)</sup>에서 대담을 통해 순수 논의를 하지만 이미 그 열기는 과거와는 질이 다른 것이었다. 그는 아마 단정수립 이후에는 일단 문학과 연구에 매진하면서 후일을 도모했던 듯하다.

공식적인 지면에 김동석이 발표한 최후의 글은 1949년 5월에 『희곡문학』에 발표한 문예수필 「셰익스피어의 酒觀」과 『태양신문』 5월 1일자에 발표한 수필 「봄」이다. 그의 공식적인 문학 활동은 1949년 5월, 위 두 글을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그의 친구 배호가 남로당 서울시 문련 예술과 책으로 활동하다가 1949년 5월에 체포되었고, 그 밑에서 활동하던 이용악이 검거된 것이 8월이었으니, 김동석 자신도 1949년 중반 무렵이나 그 이후에 월북했으리라는 추측이 나온다.<sup>39)</sup> 이 무렵 신분상의 위협을 느껴 월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보다 더 납득할 만한 이유는 그가 1948년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쓴 기행문 「북조선 인상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국가란

38) 이현식의 글에는 『태양신문』이라 되어 있지만, 이 자료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이회환의 논문에 나와 있고 이회환은 실제 대담한 날짜는 1948년 12월 20일 오후 6시이며, 대담 내용은 『국제신문』 1949년 1월 1일자에 실려 있다고 설명함.

39) cf. 이에 대해서 황선열의 석사논문에서는 『北韓總覽』에 근거를 두고 6.25 이후 월북하는 작가로 분류하여 “1949년부터 1950년까지는 뚜렷한 비평 활동이 보이지 않고 거의 절필한 상태로 지낸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서울에 잔류하였고, 1951년 서울 탈환 때 가족과 함께 월북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것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에게, 북한의 발전하는 모습은 진정한 국가와 민족이 무엇인지 가슴 벅차게 느끼게 했다. 더구나 당시 남한이 처해 있던 혼란스럽고 궁핍한 현실을 염두에 둘 때, 이것은 더욱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김동석은 그래서 주저 없이 자신의 순수 민족주의적 이상과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을 실현시킬 비전을 남이 아닌 북에서 발견하고 즉각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월북 이후, 김동석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으나, 6.25전쟁 발발 이후, 서울에 와서 문화정치 공작원 노릇을 했다는 말, 또 휴전회담 때 설정식과 북측의 통역장교로 나왔었다는 말 등이 들릴 뿐이다. 더군다나 6.25전쟁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와 관련된 글귀를 단 한자도 찾아볼 수 없다.

### Ⅲ. 시집 『길』과 순수와 이념

김동석의 시작품 고찰은 시집 『길』의 차례에 나오는 대로 1부 <풀 낚배>, 2부 <비탈길>, 그리고 3부 <백합꽃>으로 나누어 시도하고자 한다. 이 시집에는, 해방 전부터 시집이 간행되던 해인 1946년 1월 사이에 발표된 시작품까지 포함하여 총 33편에 달하는 그의 모든 시를 수록하고 있다.<sup>40)</sup> 3부로 구성된 이 시집에서 1부와 2부에 수록된 시편들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씌어진 시들이고, 3부에 실린 대부분의 시들은 해방이 되고 나서 쓴 작품들이다. 시 나열순서도 거의 시작 순서대로 편집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집에 실려 있는 시들은 김동석 자신이 어두운 일제치하를 견뎌

40) 김동석의 시작품들은 시집 『길』에 수록된 33편의 시 외에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사장되어 찾을 길 없는 「나비」라는 시와 불완전한 시형식의 수필 3편이 있다고 하여 총 37편이 된다.

오면서 묵묵히 걸어온 길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고백이다. 그리고 그는 시집 후기 「“길”을 내놓으며」에 나오는 대로 “Segui il tuo corso, e lascia dir le genti! (그대의 길을 가라,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떠들게 내버려 두라.)”<sup>41)</sup>라는 식의 남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의 시집 후기에 “열손 배 위에 얹어 놓고야 큰 소리 허렸다는데 인제 겨우 설흔의 고개를 넘어 네 번째 새 해를 맞이하는 나로서 처녀시집의 이름을 ‘길’이라 한 것은 위태로운 짓이다.”라는 구절에서 처녀시집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이 시집을 낼 때의 심정으로 미루어 계속해서 시집을 낼 생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던 김동석은 詩想이나 시적 여유에서 점점 멀어져 이념을 행동화하는데 열중하였기에 더 이상의 시집이나 시작품들이 나올 수 없었다.

### 1. 1부 <풀넙배> - 순수와 습작기

김동석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시에 대한 이상과 시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를 중첩시키고자 시집의 서시격인 「시」로 시집의 첫 장을 장식한다.

소리 없이 들려 오는 노래 한가닥  
가슴 속에 솟는 샘물의 선율일러라.

눈을 감아도 보히는 그림 한 폭  
뇌수 속에 피는 꽃의 묵화일러라.

움짚않는 팔다리 속에 춤 추는 힘

41) 김동석, 앞의 책, p. 71. 여기에 나오는 원어는 이탈리아어이고 이 글은 유명한 이탈리아의 고전작가 단테 알리기에리(Dante Alighieri)의 대표작품 『신곡, La Divina Commedia』의 연옥편( Divina Commedia, Purgatorio, V, 12-15)에 나오는 것이다.

세포에 흘러나린 처용의 춤일러라.

내 녀과 몸이 지니인 인간의 유산  
태풍 속에 숨은 한점 고요일진저!

- 「시」 전문 -

1연부터 4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어휘들 즉, ‘소리 없이 들려 오는 노래’, ‘눈을 감아도 보히는 그림’, ‘움짖않는 팔다리 속에 춤’, 그리고 ‘내 녀과 몸이 지니인 인간의 유산’ 등은 모두 시가 갖는 무한한 힘을 드러내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김동석은 본인이 비평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에 대한 이론을 미숙한대로 정립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영문학자로서 서양문학에 있어서의 시를 맞본 진일보한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4연에서 시의 마력을 강조한 김동석의 시론은 ‘태풍’을 비평으로 시를 태풍의 눈인 ‘고요’로 비유하고 있다. 임화의 참여시 「네거리의 순이」를 평했던 김동석의 시 비평과는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김동석 자신도 산문과 시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실제 그가 리얼리즘 실천비평에 대해서 쓴 일련의 비평 산문과 비교해 볼 때, 일제 말에 씌어진 시들 대부분이 생활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제재로 삼고 있으며, 동요적인 시들이 많다. 형식적으로 볼 때도 정형률이 드러나 보이는 시들이 많고, 시에 대한 시인 자신의 애착을 느끼게 한다. ‘1부 풀넛배’에 실려 있는 12편의 시들 중 「비에」만을 제외하고 위에서 언급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11편의 시들은 다음과 같다. 「시」, 「풍경」, 「낙엽」, 「갈대피리」, 「황혼」, 「아침」, 「별」, 「풀넛배」, 「우물」, 「자연」, 「하늘」 등이다. 김동석이 해방직후에 잡지 『象牙塔』을 창간하여 문학의 순수성에 집착해 문학의 독자적 영역을 고수한 것도 이 시들과 무관하지 않다. 김동석은 시집 후기에서 자신이 이 시집을 세 부분으로 나눈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시집을 “풀넛배” “비탈길” “백합꽃”의 세부로 나눈 것은 풀넛배는

- 212 -

어테인지 모르게 사라지는 시의 세계를 상징하며 비탈길은 반동적이 안 되려 엘 쓴 나의 조그만 고집이요 백합꽃은 조선의 표징으로서 - 히고도 아름다우니까 - 내가 애껴 온 꽃이다.<sup>42)</sup>

여기서 풀뉘배는 사라지는 시의 세계를 상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자신의 초기 시작품들, 습작기의 작품들의 세계, 다시 말해서 “새 노래도 꽃 향기도 언덕에 남긴 채 / 풀뉘배는 강물을 따라 흘러간다”는 식의 어린 시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꿈같은 시절들을 의미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부의 소제목이 그렇듯이 1부에 어린 동심의 시상이 많이 엿보이고(「풍경」, 「갈대피리」),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별」, 「풀뉘배」)을 접하는 기분에 짓게 만든다.

산도  
포플라도  
물구나무를 썼소.

소도  
구장님도  
꺼끌로 걸어 가오.

촌도  
물에 빠져  
한쪽 그림이 되다.

- 「풍경」 전문 -

펴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갈대넋은 불면 니나니 나니나[...]  
밀짚인형이 어깨춤 추고  
귀밑머리 탄 풀각씨가 절한다.[...]

---

42) 같은 책, p. 72.

도르르 말린 갈대뉘 속에 숨은  
이 신비를 아는 자 누구이뇨.

- 「갈대피리」 부분 -

눈은 깜박,  
입은 방실

아기별들이  
엄마별한테  
옛날얘길 듣고 있는게지요.[...]

- 「별」 부분 -

구름을 실고 유유히 흐르는 강가에서  
나는 풀뉘으로 배를 만들어 띄운다.[...]  
새 노래도 꽃 향기도 언덕에 남긴 채  
풀넙배는 강물을 따라 흘러간다.[...]  
아아 묘망한 나의 꿈이어.....  
풀넙배는 정처 없이 흘러 가고 있다.

- 「풀넙배」 부분 -

그러나 같은 동요적인 분위기라도 「황혼」과 「하늘」과 같은 시에서는  
동화적 세계에 안주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픈 자아가 아니라 무엇  
인가를 새로이 갈구하거나 아쉬워하는 비애가 느껴진다.

황혼에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하나 둘 다정히 웃고.

황혼에 나 혼자  
숲속을 거닐면  
물소리 졸졸졸 소곤거리고.

님 없는 신센대  
내 마음 황홀하여

황혼 속에 비애를 묻었드니라.

- 「황혼」전문 -

나는 죽어 구름이 되게  
너는 죽어 종달새 되렴  
나는 너를 안고 창공을 날며  
온종일 마음껏 노래 부르리.

나는 죽어 한줌 흙이 되게  
너는 죽어 맴들레꽃 되렴  
나는 너를 안고 무덤에 누어  
해 지도록 푸른 하늘 바라보리.

나는 죽어 흰 박꽃이 되게  
너는 죽어 맑은 이슬이 되렴  
나는 너를 안고 지붕에 누어  
밤이 늦도록 별을 치어다 보리.

- 「하늘」전문 -

하늘을 시적 소재로 삼아 노래한 작품은 동화적인 상상력이 돋보인다. 김동석의 시엔 하늘이 많이 등장하고, 또 어김없이 별도 등장한다. 「하늘」에서 1연엔 ‘노래’ 2연엔 ‘푸른 하늘’ 3연엔 ‘별’이 시적 지향점으로 설정된다. 일제 강점기 하에서 씌어진 시임을 감안하면 위의 지향점들이 가리키는 이상향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것은 자유로운 희망이 있는 꿈의 세계이다. 「황혼」과 「하늘」에서 시인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 소망을 드러내며 동시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비애의식을 표출시킨다. 더군다나 1부 마지막에 실린 산문시 「비애」는 그 비애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이다.

- 215 -

설거질 하다 말고 엄마는 방문을 열어 본단다. 곰, 코끼리, 원숭이 하고 노는 너가 보랴 — 엄마는 문을 열다 말고 멍하니 섰다. 곰, 코끼리, 원숭이만 나뒹그러져 있고 네가 없는 방.

아가 우리 착한 아가 너는 엄마 혼자 두고 어데를 갔단 말이나. [...]

네가 엄마 손을 잡아 다니며 냉냉 가자고 손가락질 하던

창에선

하늘이 보히고

새소리 들리고

꽃향기 풍겨 오는데

네가 있을 땐 그렇게 즐겁던 하늘이,

새 소리가, 그리고 꽃 향기까지 왜

이렇게 슬프기만 하나.

네가 가고나서부터 엄마는 아름다운 것에 눈물 짓는 버릇이 생겼단다. [...] 깨물고 싶도록 귀여운 고 손. 고 손의 보드러운 촉감 — 이 속에도 비애가 깃들일 줄이야.

무슨 소리든지 쪽빛으로 감각했다는 음악가 모양으로 나는 인제 비애 없이 생각할수도 볼수도 들을수도 먹을수도 만질수도 없게 되었다. 일체가 눈물 어린 그림이오 슬픈 음악이다.

비애는 모든 것을 미화한다. [...] 너를 사랑하는 내 비애 속에선 빛이든 맑고 깨끗해진다. [...]

너는 엄마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쳤다. “마돈나”의 자애로운 얼굴도 영아 애수가 말하는 광명이 아니냐. 아가 우리 아가 너는 가도 너의 사랑은 영원히 빛나리라 나는 믿고 살겠다.

- 「비애」 부분 -

이 시는 시인 김동석이 첫아들 상국을 1942년에 돌도 안 되어 잃은

고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시다. “네가 가고나서부터 엄마는 아름다운 것에 눈물 질는 버릇이 생겼단다”라고 4연에서 노래하는 시인은 일상적인 대화를 마치 살아있을 지 모르는 아기와 대화를 나누듯 이끌어간다. 일상적 대화체의 “귀여울수록 애처러워 못 견디겠다” “깨물고싶도록 귀여운 고 손” 등의 표현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정감있는 아버지, 다정다감한 아버지, 그리고 정말로 자상한 아버지이자 남편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너는 엄마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쳤다. ‘마돈나’의 자애로운 얼굴도 영아 예수가 발하는 광명이 아니냐. 아가 우리 아가 너는 가도 너의 사랑은 영원히 빛나리라 나는 믿고 살겠다.”(「비에」 7연)라고 끝을 맺는 시는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인간적인 성장을 노래하고 있다. 자신에게 닥친 뼈아픈 현실에 단순히 동화적, 동요적 낭만적인 요소는 이 시에 주어진 현실적인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극복되어져 보다 진지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김동석은 위의 시에서 마치 진정한 사랑의 귀감을 ‘마돈나’와 ‘아기 예수’에서 찾은 것 같다. “셰익스피어와 워어즈워어드니 하는 시인을 탐독”<sup>43)</sup>한 김동석인 만큼 서양시문학의 뿌리인 기독교사상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김동석은 「시를 위한 시 - 정지용론」에서 예수를 “떠가는 구름도 움켜잡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인류의 최대시인”<sup>44)</sup>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하고 절망의 부르짖음을 남기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김동석은 예수까지도 시인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기독교 사상을 깊이 있게 공부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성경을 접해봤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김동석 자신도 임화의 「玄海灘」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글을 내리썩도 조금도 어긋나는 데가 없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玄海灘」은 산문을 찢어서 시모양 늘어 놓

43) 채수영, 앞의 글, p. 103. 재인용.

44) 김동석, 『김동석 평론집, 월북작가 대표문학』, 한국도서출판중앙회, 1991, p. 53.

은” 시라고 하면서 시적인 것과 산문적인 것을 따로 따로 나누어 표현할 줄 모르는 것은 “지성의 소산이라 할 수 없다”<sup>45)</sup>고 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이 「비에」를 창작하면서, 의도적인지는 몰라도 1부의 다른 시들과 달리 산문시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물론 김동석 자신이 임화의 시를 평했듯 지성의 소산을 운운할 일은 전혀 아니다. 그렇지만 현대에 있어서도 산문시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모든 것을 너무나 다 서술식으로 나열하여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시상의 진수가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에서도 지나친 ‘서술’ 덕분에 그 ‘비에’의 정도가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 2. 2부 <비탈길> - 순수와 이념의 혼재

1부의 시들이 순수와 해맑음, 동요적인 정서를 노래하던 것들과는 대조적으로 2부에 와서는 시적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무거워지고, 1부에서 순수하게 비애를 노래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현실의 어조에 무게가 실려 있다. 같은 일제 말에 창작된 시들도 일제가 극악을 달리던 때로 추정되는 말기 중의 말기에 씌어진 것으로 보이는 ‘2부 비탈길’은 1부에 비해 동요적인 정서가 사라지고 시 제목들도 훨씬 무거운 것들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부에 실려 있는 시들은 「버러지들」, 「바다」, 「은행잎」, 「나무」, 「깨여진 꽃병」, 「Le Penseur」, 「풀」, 「어촌의 밤」, 「비탈길」, 「단상」, 「포폴라」 등의 11편이다.

2부 <비탈길>의 맨 앞에 실린 「버러지들」과 「바다」는 1부의 시적 어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마저 느끼게 한다.

새들은 숲 속에 잠들고  
별이 이슬마다 깃 들인 밤인데  
잠 이루지 못하는 버러지들이

45) 같은 책, pp. 32-33.

외로운 등잔불로 물킨다. [...중략...]  
 그들 미물의 버리지로 하여금  
 더러운 몸을 불살러  
 빛나는 찰나를 갖게 하라.  
 - 시 「버리지들」부분 -

달도 없는 밤인데  
 바다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중략...]  
 밤이면 바다스가에 앉아  
 흐느끼는 사나이 하나 있음을  
 너는 아는다?  
 - 시 「바다」부분 -

「버리지들」과 「바다」는 창작 시기가 극단적으로 암담했던 일제 말기 여서 그런지 소재적으로 밤과 불면증이 등장하고, “더러운 몸을 불살러”라든가, 김동석 자신을 암시하는 “흐느끼는 사나이” 등의 시대적 아픔이 드러나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다. 1부에서 보여주었던 동요적인 운율과 정형적인 틀은 이제 보이지 않는다. 이념적인 부분은 드러날 듯 말 듯 감추어진 모습으로 시 안에서 꿈틀거린다. 혁명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 「버리지들」에서는 버리지들로 드러나는 민중의 아픔과 민중의 무모함을 읽을 수 있다. “어둠을 등지고 파다거리는 미물들// 낮에는 풀 속에 흩어져 있어서/ 존재조차 모르던 그들”인 버리지들에게 “창문을 열어주라// ... 빛나는 찰나를 갖게 하라.”고 명령조로 호소하고 있다. 해방 투쟁에 제 몸을 불사름을 암시하는 시구들이 동요적 순수함을 드러내고 있던 1부와 다른 시적 변화를 보여준다.

2부에서 눈에 띄는 시들은 「나무」와 「비탈길」, 「단상」 등이다.

상처 입은 나무잎 흩어져 눕고  
 뼈만 남은 가지는 바람에 떠는데

가마귀떼 까악까악 지저귓다.

불길한 새 가마귀야 죽음을 노래하라.

살무사도 땅 속에 숨는 거울  
나무는 조각달 하나 없는 밤에  
산 넘어 붉은 태양을 꿈 꾸다.

불길한 새 가마귀야 죽음을 노래하라.

푸른 잎새이 나비가 되는 유월  
해 빛은 은어때처럼 춤 추리니  
그 때를 바라고 수난하는 나무들.

억눌린 생명은 숨어 꿈틀거리어라.

- 「나무」 전문 -

김동석은 해방의 강렬한 염원을 거침없이 “붉은 태양”으로 내세우면서, 억눌린 어려운 일제치하를 견디어냈다. 「나무」는 암울한 시대를 나무처럼 끈고 믿음직스럽게 인내하는 지식인 김동석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시이다. 「나무」에는 절제된 시어들과 시적 은유를 통해서 내면적으로 뜨거운 이상에 대한 열정과 간절한 희망을 완곡한 어투로, 그렇지만 어떤 직접적인 투쟁의지보다 강하게 표출해내고 있다. “불길한 새 가마귀야 죽음을 노래하라”는 절망적인 단언조차 그의 내면의 비장함을 더 강조해줄 뿐이다. 시적 순수함과 이념이 잘 혼재되어 있는 대표적인 시이다. 김동석 자신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시론, 즉 감상적인 면이 배제되고, 음악성은 살아 있으며, 행동이 뒤따를 것을 전제하면서 결연한 의지가 강하게 배어 나오는 시에서 그리 멀리 있지 않다.

또 다른 시 「단상」에서는 시인이 견디어내야 하는 답답한 현실이 보

다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날개를 가지고도 날으지 못하는 나”, “나래미가 있어도 자유로 험 못치는 나”로 자신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시인은 시 「비탈길」에서 자신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초기 시에서 보이는 형식에 대한 속박을 어느 정도 극복하고, 자연물에 의탁하여 암담한 어조로 불안과 답답함을 토로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직설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인생을 ‘비탈길’에 서 있는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나는 짐 실은 수레를 끌고 비탈길을 올라 간다.

인생의 고개는 허공에 푸른 활을 그리고  
그 넘어 흰 구름이 두둥실 떴다.

길은 올라갈수록 가파르고 험하야-

나는 잠시 수레를 멈추고  
올라 온 길을 내려다 본다.

뱀인양 산비탈을 내려  
가르마처럼 넓은 별을 건너

아득히 내 고향 품속에 안기는 길-

개나리꽃 핀 울타리에 기대여 서서  
치마사자락으로 눈물 씻던 순이.....

아아, 영영 돌아올리 없는 이 길에  
나는 청춘의 그림자를 떨치고

인생의 고개 넘어 무엇이 있는진 몰라도

나는 짐 실은 수레를 끌고 비탈길을 올라 간다.

- 「비탈길」 전문 -

“비탈길은 반동적이 안되려 앵 쓴 나의 조그만 고집”이라고 한 시인 자신의 말로 보아 암울한 일제 강점기를 인내하려는 젊은 지성인의 독백이자 굳건한 의지가 돋보이는 시이다. 이 시가 어찌 보면 시집 『길』의 주제적인 시라 할 수 있다. 시 「비탈길」은 시집 『길』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다. 동화적, 동요적 실험도 끝이 나고, 끝없이 빗대어 나열하는 비유적인 표현도 사라졌으며, 절제된 언어와 절제된 감정, 그리고 절제된 이념이 가장 잘 어우러져 있는 시이다. 모든 인생이 갖고 있는 불안 의식을 저변에 깔고 삶을 긍정하며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표현대로 “우리네 인생길 반고비에”에 접근한 서른네 살의 목직함이 느껴지는 시이다. 「비탈길」은 또 “풍경화”적이다. “무거운 짐을 싣고 비탈길을 올라가는 정경이 불안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담담한 것은 ‘넓은 별’ ‘흰 구름’ ‘개나리꽃’ 등의 시어가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sup>46)</sup>이다.

### 3. 3부 <백합꽃> - 이념과 열정의 만남

해방 이후에 창작된 것으로 생각되는 3부 시들은 1부의 시들에 비해 훨씬 진지하며 사상적 고집이 강하게 엿보이는 시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3부에 실려 있는 시들은 「경첩」, 「희망」, 「눈은나리라」, 「백합꽃」, 「나는울었다」, 「길」, 「알암」, 「기다림」, 「산」, 「연」 등의 10편이다. 3부에 실린 시들은 「연」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해방이 되자

46) 채수영, 앞의 글, p. 107.

마자 썼던 시들이다. 3부에서 제일 먼저 실려 있는 시 제목 ‘경칩’은 바로 이 해방을 비유한 것이다.

태양이 막 적도를 넘으려할 때  
온 겨우내 죽은 듯 괴괴하던 땅속에서  
무수한 생명들이 머리로 지각을 부빈다.[...]

우주의 새 봄을 낳기 위하여  
최후심판날 천신이 부는 나팔에  
죽은자 놀라 깨일 때도 이러하리니

잠에서 깨어나 눈을 부비고  
태양을 맞으러 기지개 치는 자에게  
꽃 피고 새 노래하는 부활이 오리라.

- 「경칩」 부분 -

해방의 기쁨을 부활로 노래하는 시 「경칩」에서는 당당하다 못해 장엄함마저 느껴진다. ‘우주의 새 봄’이라든지, ‘최후심판날 천신이 부는 나팔에’ 그리고 ‘부활’ 등에서 김동석이 또 다시 서양기독교 문화에 조예가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앞서 시 「비애」에서도 ‘마돈나’와 ‘아기 예수’를 통해 자신의 기독교적 지식을 드러내고 작품에 인용하고 있었는데, 시 「경칩」에서도 최후의 심판과 부활사상에 대한 기독교적 지식을 비유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경칩」에서는 이렇듯 해방 직후의 흥분이 곧바로 시적 흥분 상태로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해방 직후 1945년 11월에 발표된 「희망」에서는 「경칩」에서의 흥분은 사라지고 어느 덧 담담하지만, 시적 순수함이 드러나는 듯하다가 현실적인 예리함이 세워지고 오히려 다른 이념적 새로운 희망, 이념적 열정이 느껴진다.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네 양볼에 떠도는  
하마 꺼질듯한 미소를 볼 때마다  
웬일인지 눈물겨웁다. 황량한 가을피에  
서서 이름 없는 적은 꽃을 보는 듯...

“아빠 어데 갔니?”하고 물으니까  
“돈 벌러 갔어”하고 대답했다는 너

아버지 대상날도 울지않은 나다.  
내가 아버지고 네가 내인줄 알기에  
나는 너를 아버지로 알고 있단다.

너의 할아버지는 구멍가개를 보고  
네 애비는 사방모를 쓰고 다녔다  
현아,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을 하랴.

짓밟혀 시들은 잔디에 풀잎이 돋고  
너이들이 무심히 덩구는 동산—  
그 동산을 꿈 꾸며 두 주먹을 쥐어본다.

- 「희망」 전문 -

담담한 듯 이어지는 가운데 「희망」4, 5연은 시인의 결의가 절실한 울림을 준다. “세살된 상현에게 주는 시”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시에서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억울하고 암울한 세대를 거쳐 온 고생 많은 ‘아버지’로서 자식에게만은 ‘희망’과 평온이 깃드는 세계를 열어주고 싶은 의지를 느끼게 한다. 사실, 너무나 엄원하던 것이 막상 실현되어 눈앞에 펼쳐질 때는 담담함이 자리 잡고, 그 이후를 걱정하는 또 다른 실존적 문제들이 불거지게 마련이다. 세 살짜리 아들의 모습에서 시인은 불쌍한 프롤레타리아, 힘없는 민중을 보고 있다. 또한 “너이들이 무심히 덩구는 동산”에서 새로운 이념의 이상향을 꿈꾸는 시인의 간절한 열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시 「눈은 나라라」에서 김동석은 일제치하를 “달밤을 대낮이라 우겨가며/ 술 먹고 춤추던 무리들”의 광란의 거리와 죄로 보면서, ‘눈’으로 상징되는 정화작용, 청산작업을 갈구하는 시인의 열망을 드러낸다. 단순한 시적 상징을 사용하여 일제잔재의 청산으로 나아가는 “순백의 길”을 강조하며, 그 길의 완성에 “붉은 태양”으로 상징되는 새 조국 민주주의 조선의 건설을 외친다.

달밤을 대낮이라 우겨가며  
술 먹고 춤추던 무리들 잠든듯 고요한  
서울의 거리 죄 많은 거리 거리 ...[...중략...]

나라라 함박꽃인양 눈은 나라라  
너는 이성(理性)의 순결한 옷자락으로  
깃뽀뽀 더럽힌 거리를 품어 안으라.

홍분한 야망과 욕심을 깔아얹히고  
눈은 내려 내려서 거리 거리를 덮고  
먼동이 트기전 오예와 치욕은 숨으라.

거리마다 부끄러운 이들의 얼굴 얼굴  
그들의 발길이 밟고 가는 순백의 길—  
그 길 위에 붉은 태양은 빛갈을 던지리라.

- 「눈은 나라라」 부분 -

이미 김동석의 시에서는 순수한 정감이 사라진지 오래다. 시 「눈은 나라라」에서는 오로지 이념과 투쟁의 열정이 타올라, 오로지 시대적 아픔과 새시대를 건설하려는 투지가 함께 하는 이념시의 경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같은 “붉은 태양”이 시어로 등장하지만, 2부의 「나무」에서와는 시적으로 다른 분위기를 자아낸다. 「나무」에서 절제되어 표현되던 이념에 대한 감정적 응집력이 분출되어 나오는 시이다. 앞서

「나무」에서는 꿈에서나 그리고 마음 안에 담아두어야 했던 상황이라면, 시 「눈은 나라라」에서는 터뜨려야 할 상황이었을 것이다. “순결한 옷자락”과 “순백의 길”이라는 눈의 흰색과 “붉은 태양”의 공산주의 상징색이 대조를 이룬다. 얼핏 일장기의 상징색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혁명의 상징색을 의미하고자 김동석은 모든 기존의 체재와 틀을 다 뒤엎어 버릴 ‘눈’을 부르고 있다. 그 위에 새로이 건설될 새 세상, 새로이 비출 혁명의 정신, 혁명의 빛을 이 시의 마지막 연에서 노래하고 있다. 시 「눈은 나라라」는 「나는 울었다 - 학병 영전에서 -」의 시귀 중 울음으로 분노를 터뜨리던 김동석의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이다.

학병 영전에서  
나는 울었다.

약하고 가난한 겨레  
아름다움이 짓밟혀 슬픈 땅  
조선의 괴로움을 안고  
눈물을 깨물어 죽이며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아왔거늘 [...중략...]  
아아 이 어인 눈물이나.  
마음에 품었던 칼을 번득여  
독사를 버히라.

겨레의 피를 빠는 징그러운 배암, [...중략...]  
그러나 나는 울었다  
울기만 한 것이 원통해서,  
나는 또 흐느껴 울었다.

- 「나는 울었다 - 학병 영전에서 -」 부분 -

김동석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참고 참아왔던 울분이 터져 나온다. 투쟁적이고 성난 심정을 섬세한 시적 표현이라든가 수사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직설적으로 드러낸다. 그렇다고 선전문구나 슬로건 따위의 구호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니며, 씩씩한 기백과 강렬한 의지를 명징하게 투사시키고 있다. 시 「알암」에서 “삶은 기쁘고도 슬픈 것 / 죽음은 슬프고도 기쁜 것/ 죽어서 살려는 알암의 뜻/ 혁명가의 뜻이 이리하니라./”(3연)라고 한 김동석의 단도직입적인 표현이 어울린다. 이제 굳이 김동석은 일제 강점기하에서 숨죽여 자신의 울분이나 이상을 삭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 「나는 울었다 - 학병 영전에서 -」의 결연한 의지가 「알암」에서 구체적인 어휘 ‘혁명가’로 연결된다. 이 두 편의 시 사이에 있는 시가 이 시집의 표제작인 「길」이다.

김동석의 시적 상념을 채우고 있는 붉은 태양이 여기서도 하나의 상징으로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다. 직설법의 어투와 절제된 시 형식이 눈에 띈다.

달은 없어도 별이 총총해  
은하가 머리 위에 동서로 뻗치고  
반디불 하릿하게 나르는데  
나는 혼자서 밤길을 걷는다.

마을은 어둠 속에 잠들고  
버레 울음소리에 밤은 깊어가는데  
멀리 보힐듯 말듯한 불빛은  
남편 기다리는 안해 있음이리라.

길은 수수밭 사이를 지나  
포도 향기 그윽히 풍겨오는데  
어데서 개 한 마리 요란히 짖음은  
내 발자국 소리에 놀라 꺾인가.

나무 나무들도 잠든 듯 한데  
바라보는 산들의 침묵은 무겁고  
가도 가도 끝 없을 나그네스길임에

주저앉어 목놓아 울고만싶다.

그래도 이 길이 별빛에 히고  
여러 동무가 내 앞에 걸어갔음에  
나는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않고  
또 다시 용기를 얻어 발을 옮긴다.

길은 흰 강물처럼 구비쳐  
어둠 속을 감돌아 산 속에 들고  
이 밤이 다하는 산봉우리에선  
붉은 태양이 쬐치며 솟으리라.

- 「길」 전문 -

시인의 결연한 의지와 미래상을 가장 잘 암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이다. 표제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시인의 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정신세계가 가장 잘 압축되어 드러나 있다. 6연으로 구성된 시 「길」에서는 시인이 나아가야 할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마지막 연에서 어둠의 시대가 가고 붉은 태양이 솟아올 것이라는 신념의 표출은 결연한 의지를 대신하는 시행이다. “젊은이들은 묵묵히 걸어 간다”는 시작으로 전개되는 시 「산」 역시도 시적 자아가 묵묵히 그러나 강인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 「산」이라는 시의 끝도 “해방의 붉은 태양은 산 넘어 있다”로 매듭지어지고 있다. “붉은 태양”이 얼마나 시인 김동석의 뇌리에 박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시 「길」은 김동석의 이념과 열정이 가장 이상적으로 만난 이념시의 전형이다. 김동석 자신이 임화론에서 예찬한 임화의 「바다찬가」보다 오히려 이념시의 전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비평가로서 유일하게 남긴 시집에서 김동석은 자신이 비평의 잣대로 삼았던 시적 순수성이 살아 있고, 음악성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의 시가 그대로 행동이 되었음을 보여준 표제작 「길」을 남기고 갔다.

3부의 끝에 있는 「연」이라는 시는 김동석 자신이 시집 후기에서 “과시즘의 패부를 예언한 산문시였었는데 상징이 지나쳐서 무언지 모르게 되어

버린”<sup>47)</sup> 시이다.

햇별이 포근한 금잔디 위에서 아이들이 연을 쫓다. [.....]  
아이들의 눈동자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구름 한점 없는 푸른 하늘에 날고있는 수 많은 연.

쇠뿔장군이 반달을 받으러 간다. 청치마는 오들오들 떨면서 밑에서  
이 광경을 쳐다 본다. [.....]

“뻐다! 뻐다! 쇠뿔장군이 뻐다!” 아이들이 고향을 치면서 밧고랑 논두  
렁으로 뛰어 간다. 그렇게 불양하게 굴던 쇠뿔장군이 반달한테 나간 모  
양이다.[.....]

- 시 「연」 부분 -

김동석은 파시즘을 쇠뿔장군으로 빗대어 반달에게 나동그라지는 모습  
을 그려내고 있다. 반달은 해방 이전의 반쪽자리 우리 민족의 모습  
일 것이다. 3부에 실린 시들 중에서 시기적으로 앞선 작품이어서, 이념  
과 열정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시들과 빛깔을 달리한다. 3부에는 실려  
있지만, 분위기는 오히려 1부나 2부에 더 어울리는 작품으로 보인다.  
김동석이 산문시를 선호했던 것은 아니며, 임화의 산문시들을 비평하  
는 자리에서 비평가 김동석은 “산문을 짚어서 시모양 늘어 놓은” 시라  
고 한 바 있다.

#### IV. 김동석 시의 문학사적 의의 - 맺음말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고 일제말의 습작기와 해방 직후의 습 가  
뿐 시기를 내 달려온 비평가 김동석의 비평이 아닌 시작품들을 중심으

47) 김동석, 앞의 책, p. 72.

로 간단하게나마 시인 김동석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그의 시작 이력도 그리 오래지 않고, 시집 『길』만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도 상당히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순수민족주의자를 자처하면서 독특한 비평관으로 줄곧 일관했던 상아탑의 김동석이지만 오로지 비평가라고 평가하기에는 그의 시집이 비중이 있어 보였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듯 하지만 본 줄고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해방 직후의 어려운 시적 현실에 직면했던 시단에 해방의 흥분과 감상에 머물지 않고 묵직한 지식인의 의지를 표출시켜 주었던 김동석, 그는 순수하다 못해 ‘세상’을 잘 안다 해 놓고 너무나 몰랐던 ‘순진한’ 민족주의자, 열정주의자, 고뇌하며 행동하는 지식인의 전형이었다. 시 「경칩」에서 나오는 “태양을 맞으러 가지개 치는 자에게 / 꽃 피고 새 노래하는 부활이 오리라//”고 낙관했던 상황의 오관으로 인해 부활은 보지도 못한 채 매장되어 버렸던 김동석은 이제 단 한 권이지만 시집 『길』을 통해서 보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동석은 비평가로서 뿐만 아니라, 강인하고 울곧게 해방 후 시적 전망을 제시한 시인이라 평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본고는 김동석의 유일한 시집 『길』에 실려 있는 시 작품들을 중심으로 좌익 측 소장 비평가 김동석이 아닌 시인 김동석의 진면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집 『길』에 실려 있는 시들 중 특히 1부에 실려 있는 시들이 주로 동요적인 특성과 정형성을 띤 시들이라는 점은 의외의 모습이었다. 이것으로 ‘독조 비평가’라는 좌익 비평가의 면모를 불식시킬 만큼은 아니어도 김동석이 예술가적 순수성을 작품을 통해 드러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어도 시집 『길』에 실려 있는 작품들은 김동석 자신이 어두운 일제치하를 견뎌오면서 묵묵히 걸어온 길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고백이다. 그런 만큼 1부, 2부, 3부에 걸친 그의 시적 고백을 통해서 순수한 시의 세계에서 점차 현실적인 시의 세계로 변화되어 가는 증거를 잡을 수 있었다. 1부에서는 습작기 수준의 순수함을, 2부에서는 순수와

이념의 혼재 양상을 볼 수 있었던 반면에, 3부에서는 그의 리얼리즘 비평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시작품들을 통해서 이념과 열정의 만남과 사상적 확립 및 시세계의 정서적 고갈을 예견해 볼 수 있었다.

**주제어** : 김동석(Kim Dong-Seock), 월북문인(the literary man of South Korea who went to North Korea before or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the Japanese Colonialism), 순수시(pure poem), 이념시(ideologic poem), 생활비평(critic of life), 마르크스주의(Marxism), 민족주의자(nationalist),

## 참고문헌

### 기본자료

- 김동석, 『길』, 정음사, 1946.  
\_\_\_\_\_, 『해변의 시』, 박문출판사, 1946. 4.  
\_\_\_\_\_, 『월북작가대표문학』, 김동석평론집, 한국도서출판중앙회, 1991.

### 논문 및 평론

- 고설봉, 김미도, 「증언으로 찾는 연극사 - 국민연극시대」, 『한국연극』, 1992.5.  
권영민, 「해방 직후의 문인 월북과 그 문학사적 위상」, 『한국민족문학론연구』, 민음사, 1988.  
김동리, 「독조문학의 본질」, 『문학과 인간』, 백민문화사, 1948.  
김영진, 「김동석론 - 김동석의 비평과 그 한계」, 『전주우석대우석논문』, 1993.12.  
김철수, 『신간평-해변의 시』, 『서울신문』, 1946, 6, 23.  
문철민, 『김동석 수필집 “해변의 시”를 읽고』, 『중외신보』, 1946, 5, 21.

- 송희복, 「김동석론 - 해방기 문학비평의 표정」, 『현대문학』, 1990. 7.  
——, 「상아탑과 구국투쟁에 이르는 길」, 『해방기 문학비평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3.
- 이광현, 『김동석과 그의 인간상』, 『자유신문』, 1949, 2, 18.  
——, 『민족문학의 재검토 - 김동석, 김동리 대답을 읽고』, 『자유신문』, 1949, 1, 25-29.
- 이의환, 「김동석문학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2.  
이현식, 「역사 앞에 순수했던 한 양심적 지식인의 삶과 문학 - 김동석에 대하여」, 『황해문화』, 1994.6, pp. 212-234.
- 정지용, 「부르조아의 인간상과 김동석」, 『자유신문』, 1949. 2. 20.
- 채수영, 「詩的 同一性和 距離 - 金東錫論」, 『詩文學』, 1990. 3-4월호
- 홍성식, 「생활과 비평 - 김동석론」, 『명지어문학』, 1994.5. pp. 151-175.
- 황선열, 「해방기 민족문학론의 특성 연구 - 김동석 비평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2.12.

단행본

-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76.  
서연호, 『한국근대희곡사』, 고려대출판부, 1994.  
신동욱, 『한국현대비평사』, 시인사, 1988.  
Alighieri, Dante, 『La Divina Commedia, Purgatorio』, Le Monnier, 1982.

<Abstract>

A Study on the two aspects of the pureness and the ideology, expressed in the collection of poems of Kim Dong-Seock *The Way*

Kim, Hyo-Shin

This article is focused on looking around the poetic world of Kim Dong-Seock who was famous for the modern critics in realism before or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the Japanese Colonialism.

The only collection of poems entitled by *길 the Way* of Kim Dong-Seock has 33 poems and it is organized in three parts: 12 poems of the first part '풀넙배 the grass leaf boat', 11 poems of the second '비탈길 the sloping road' and 10 poems of the third '백합꽃 the lily'. The first and the second part were written before the liberation of Korea from the Japanese Colonialism, while another third part after the liberation.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part are the fixed form of Korean traditional verse, the pureness and the emotion of the childrens' song, in which the sorrowfulness of the real life of the Japanese Colonialism is revealed in indirect way, while those of the second part are the realism, and the poetic agony in real life, in which the emotion and the pure sense of the childrens' song are far from expression. And the poems of the third part expressed the very similar tendency of the ideologic poems and the modern critics in realism.

The collection of poems, *the Way* can be considered as a kind of poetic confession of his life story, in which we can find the poetic

process of change from the pureness to the realistic awareness. And especially with the third part one can foresee the ideological establishment and the further emotional exhaustion of the poetic world of Kim Dong-Seock.

김효신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동 330

대구가톨릭대학교 외국어대학 이탈리아어과 교수

전화: 053-850-3146(연구실) 010-3072-3146

e-mail: hskim1@cu.ac.kr

이 논문은	2006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6년	5월	3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6년	6월	30일	간행함